

2007년도 국가과학자에 유 룡 KAIST 교수 선정

- 연간 15억원 최대 6년 동안 지원
- 연구 자율성 최대한 보장

2007년도 국가과학자로 유 룡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가 선정되어 연간 15억 원의 연구비를 최대 6년 동안 지원받게 됐다.

국가과학자위원회(위원장 임 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는 지난 11월 2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9차 국가과학자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국가 과학자로 추천된 6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과기부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국가과학자로 선정된 유 룡 교수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구멍이 규칙적으로 뚫려 있는 이산화규소 물질 속에서 분자나 원자들을 조립시켜서 새로운 나노구조의 물질을 합성하는 '나노주형합성법'을 창안함으로써 지금까지 만들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조성과 구조의 나노물질(나노막대, 나노다공체 등)을 합성하는 길을 개척하였다.

특히 유 교수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메조영역(2~50nm) 크기의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탄소, 즉 규칙적 메조다공성 탄소물질을 세계 최초로 합성함으로써 규칙적 메조다공성 탄소물질에 관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렇게 합성한 나노다공성 탄소물질은 연료전지 및 슈퍼 축전지의 전극 재료 등 차세대 에너지 핵심 소재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교수는 이날 "21년 전 대학 교수로 부임해 3년 동안 휴일에도 혼자 밤늦게까지 실험실을 지켰던 어려운 시절이 새삼 다시 생각난다"며 "그 동안 나를 도와준 학생들과 가족에 감사한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실험실을 두 배로 늘리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응용할 친환경 나노 물질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1977년 서울대와 KAIST를 졸업한 뒤 1985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KAIST 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1년 KAIST로부터 테뉴어(정년보장 교수)를 받았다.



이번 국가과학자 심사는 과학기술관련단체(학회, 협회, 대학, 연구소 등)에서 추천한 총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국과학재단에서 4개 분야별로 각 10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1단계 전문 분야 평가를 한 후, 이들의 연구업적과 향후 연구계획을 종합 평가(해당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하는 2단계 평가절차를 거쳤다.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6명의 후보자를 국가과학자위원회에 추천하고, 국가과학자위원회는 이들 6명을 대상으로 각 단계 평가위원장으로부터 평가 의견을 청취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었거나 과학기술인상 수상 등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과학기술자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2명을 선정(총 10명 규모)하여 연간 15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최대 6년 동안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선정된 국가과학자는 연구주제와 내용 및 연구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국가과학자 선정은 지난해 제1호로 뽑힌 KIST 신희섭 박사와 이서구 교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㉞ (관련기사 32쪽)

글 | 편집실